

특별취재

# 부안군, 공약이행을 최하등급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요청 목살... 비판의 목소리 거세

소통·공감·동행 “행복한 군민” “지랑스런 부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자료요청에 목살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보 7월 14일자 1면〉

특히 부안군은 주민소통이 우수하고 공약이행 내용이 자세히 공개됐으나 입법, 재정정보와 재정정보 논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2차 소명요청에도 담당자가 응대하지 않아 D등급을 받아 공약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가 발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 기초자치단체 공약 701개 가운데 11.4%(80개)가 완료되고 20%(140

개)가 이행 후 계속 추진돼 총 31.4%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15년 목표달성, 주민·웹소통 일치도를 평가해 5단계(SA-A-B-C-D)로 등급을 매겼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완주, 남원, 김제, 진안군이 85점을 넘어 최우수(SA)등급을 받았고 전주, 군산, 순창, 고창군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D등급 지역의 행정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대부분 D등급을 맞은 지자체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곳이거나 인허가가 집중되는 곳이었다”면서 특히 “부패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로 지적 되는 것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이행에서조차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달 20일 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공약 이행평가 회의를 열고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체 72건 중 88.9%인 64건이 완료 및 정상 추진으로 평가 받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하등급인 D등급을 내려 말쑥한 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으로 체육단체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 체육회(회장 김종규)도 지난 14일 창립총회를 하고 새롭게 창립됐다.

통합된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기존 부안군 통합체육회를 해산 후 부안군 체육회 창립총회가 이날 개최됐으며 부안군중추발전체장과 체육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당연직 회장으로 김종규 부안군수가 선임됐으며 부회장과 이사, 회계감사는 회장에 선임관한을 위임했고 행정감사에는 이현주 부안군 육상협회 대의원이 선출됐다.

부안군 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종규 회장은 “스포츠라는 이름하에 하나 된 체육인들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며 “이번 통합으로 체계적인 체육기반을 구축하고 부안군 체육을 발전하려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종규 회장은 “내년 전북도민체육대회에서 부안군을 찾는 모든 체육인들에게 부안군 체육회의 위상과 품격 그리고 쉼터로서 보여줘야 할 단합된 모습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부안군 체육인들에게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부안진서면, 전갈보관함 재활용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 오염 예방

부안군 진서면(면장 김호연)과 새마을지도자 진서면협의회(회장 배연수)가 환경오염 유발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 빈병수거를 위해 전갈보관함을 재활용해 농약빈병수거함을 설치,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진서면은 지역 특산품인 곰소젓갈을 만드는 공장 및 판매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갈보관함을 수거한 뒤 재활용해 관내 23개 마을에 농약 빈병수거함을 설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거된 폐농약병은 1kg당 농약분지는 2760원, 플라스틱병은 800원의 보상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배연수 새마을지도자 진 서면협의회장은 “농촌에서 농약빈병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청정 힐링 관광 진서면의 미관 훼손 지어는 수거 오염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번 민·관의 적극적인 협치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연 진서면장은 “항상 숭신수범해 주시는 새마을지도자 진 서면협의회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농약빈병수거함 설치가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의 계기가 돼 전 면민들이 함께 푸른 청정 진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지평선홍보클럽 '삼계탕 Day' 열려

올 여름 초복이 공휴일(17일/일요일)이라 지평선홍보클럽 정점이회장과 회원들 20여명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지난 14일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장애인 및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삼계탕 Day'를 열었다.

“초복을 맞이하여 마련한 이날 행사에 지구촌마을, 소외계층 어르신 및 지역 장애인 200여명을 초대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으로 정점을 대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정점 회장은 “겨울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들의 원기회복을 위해 한 끼 식사지만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하니 어르신들이 삼계탕 드시고 올 여름 거뜨히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주)라라스팸은 2015년 10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인근 지역농기로부터 원재료(콩)를 매입하여 제품 생산, 고객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운영하는 두부 및 두류가공제품 회사로 자사제품에 대한 마케팅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폰서십 체결이 이루어졌다.

## 김제지평선축제 - (주)라라스팸 스폰서십 체결

### 올해 축제서 '두부 홍보 전시·판매관' 운영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정희운)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위해 15일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라라스팸(대표 배삼태/전북 익산시 소재)과 후원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제시는 2011년부터 전국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명 메카도시로의 기반을 육

성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농경문화축재인 금년 김제지평선축제에서는 UN이 지정한 「세계 콩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ulses)」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중지생령산업 홍보 체험관」과 콩을 원재료로 하는 「두부 홍보 전시·판매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라스팸에서는 금년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와의 스폰서십 체결을 통해 「두부 홍보 전시·판매관」의 운영을 맡게 된다.

(주)라라스팸(이하 '라라스팸')은 2013년 10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인근 지역농기로부터 원재료(콩)를 매입하여 제품 생산, 고객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운영하는 두부 및 두류가공제품 회사로, 포두부, 혼제두부바 등 다양한 자사제품에 대한 마케팅효과 극대화를 위한 판로 개척 차원에서 스폰서십 체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금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콩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ulses)」로서 UN에서 3년 연속 농업과 관련된 주제를 집중 조명(2014년 세계가족농업의 해, 2015년 세계 휴의 해)하고 있는 만큼 최근 세계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부안군, 수도권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홍보



부안군은 사단법인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시초구 방배동 소재 전북도 수도권 홍보관에서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펼쳤다

부안군은 사단법인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지난 14~1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전북도 수도권홍보관에서 수도권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 귀농귀촌협의회 이현주 홍보활동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안군 귀농을 희망하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부안군 정책설명회 및 상담, 거리캠페인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군은 이날 홍보활동에서 집중 상담 목표인 30명 계획에 교육수로 인원 67명이 참가하고 정책교육에는 168명이 참석해 수도권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의 새 희망지로 부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민·관·경 합동캠페인 실시

김제시는 지난 14일 김제시 청소년 선도활동 단체인 지평선프로미순찰대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참여한 지평선프로미순찰대는 BBS김제지회, 희망김제민원봉사대, 포탈로김제지회, 한국자유총연맹(포순이봉사단), 김제청년회의소이며, 이들 5개 단체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청소년의 건강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4대약 근절과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제시공무원, 김제경찰서, 김제교육지원청,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민·관·경과 연계하여 40여명이 터미널 사거리에서 집결, 열의를 다지고 김제 시내권을 총 4개 지구로 나눠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계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는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 체험장, 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해 머물면서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산림휴양단지조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 정읍시, 산림휴양단지 토지매입 업무협약

정읍시는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14일 소유주인 봉산이씨 문중과 토지매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9억원을 들여 쌍암동 일원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 체험장, 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해 머물면서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산림휴양단지조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산림휴양단지 총면적 약200ha중 50% 이상이 봉산이씨 문중 소유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

련된 만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호 문중대표는 “내대손수 이어온 문중의 산을 정읍시 산림휴양단지 조성지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내 고향 정읍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휴양단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읍시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승호 문중 대표와 문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18년까지 모든 토지매입을 마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유한식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청렴교육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인수)는 지난 14일 유한식 상임감사를 초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감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인수 지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신규 사업수주를 통한 지평경역 구축과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을 중점 과제로 2016년 지사 경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청렴교육에서 유한식 감사는 최근 유지관리 인부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재차 발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렴한 공기기업으로 제도약하기 위한 직원 개인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를 강조하면서, 공직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공직철학인 “깨끗하게, 공정하게, 당당하게” 청렴한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청도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시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시, 인구 15만 회복 범시민 다짐대회

정읍시는 지난 14일 오후 4시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범시민 다짐대회’를 가졌다.

기관·단체·기업체 대표 및 시민 300여명이 함께한 이번 다짐대회는 인구 15만 회복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모든 시민과 기관·단체, 기업체가 함께하는 범시민 인구 회복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짐대회에서는 지난 5월 8개 자녀를 출산한 입양부의 인정증지를 비롯해,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구 15만 회복에 기여한 23개 읍면동의 다자녀 모범가정이 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인구가 경쟁력

이다’는 주제로 인구보전복지협의회 전북지회 안정진 감사의 특강도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김성기 시장은 “정읍은 철도·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 등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오르는 2018년까지는 기관·단체·기업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전략적인 인구 회복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회복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인구회복에 우리 정읍 시민들과 후손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인구 15만 회복 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연지동주민자치위, 어르신여름나기 발달임행사 성향

연지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나희수 이하 위원회)는 지난 15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발달임행사를 가졌다.

위원회는 연지동주민센터 직원들과 협력하여 주민센터 2층에 행사장을 준비하고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 여

름철 대표 보양음식인 닭죽을 제공했다.

나희수 위원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닭죽과 밑반찬을 직접 마련했고 앞으로 지역 내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